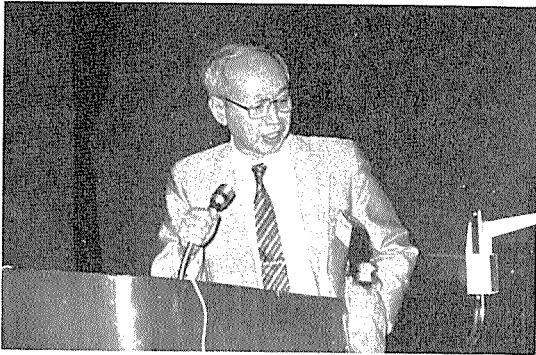


韓 · 日 技術交流에 대하여

平 山 博
日本 早稲田大 教授 / 工博



강연중인 平山博 박사

두 나라 사이의 기술 교류에 있어서는, 기술 분야마다 그 성장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대응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분화된 기술 분야의 성장 과정은, 발아기에서 완만하게 진전하기 시작하여 육성기를 경유하면서 급속도로 진보해 가며 그 후에는 가속 시대로부터 감속시대로 이행하고 결국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지금 문제로 삼

고 있는 기술 분야가 그 나라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와 있는 가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

더욱이 양국의 기술 성장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시기의 기술 교류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협력과 분담과 경쟁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이 기술적인 협력을 하여 다른 제외국과 경쟁하는 일도 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있으므로 처음으로 가능하여 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술 협력의 전제로서 인간적 교류가 필요하다. 젊은 기술자의 한일교류를 조성하는 것을 일본에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한국에 있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금후,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과의 국제적 분업, 기술 분담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시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과잉 경쟁을 한다면 그 분야는 서로 경제적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의 특성을 살린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서로가 인정하며, 대화를 하면서 기술분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한국 내에 있어서도 기술의 육성기에 과잉 경쟁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력과 분담만을 생각한다면 양국의 기술에 활력이 저하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은 경쟁한다는 것이 큰 활력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장래 한국의 전자공업이 일본의 전자공업의 좋은 경쟁 상대가 되는 시기가 올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